

勞 動 經 濟 論 集
 第26卷(3), 2003.12, pp. 181~207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젊은 여성의 첫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김지경* · 조유현**

본 연구는 노동시장 이행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결정하는 요인을 콕스 비례재해틀 모형(Cox Regression Hazard Model)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 결과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학력이라는 인적자본이 정(+)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자녀보육 대행자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이행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출산 전 취업 형태가 임금근로일 경우 노동시장 복귀로의 이행률이 비임금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출산, 노동시장, 복귀

I. 서 론

1990년대 이전의 여성 인력에 대한 관심이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이었다면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여성 인력에 대한 논의는 '저활용(underutilization)'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여성 인력 저활용에 관한 관심과 논의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해하게 되는 요인이 됨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jkkim@kli.re.kr)

** 중앙대학교 주거학과 부교수(yhcho65@post.cau.ac.kr)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력은 1963년 36.0%의 경제활동참가율에서 2001년 48.8%로 증가하는 양적인 변화와 더불어 질적으로도 저학력과 저연령의 단순인력 중심에서 벗어나 고학력화·전문화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난다(최강식·정진화, 1997; 통계청 2002; 강우란, 2002). 그러나 이러한 양적·질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인력의 저활용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20~30대의 노동시장 '단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산업화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우리나라 여성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결혼 및 출산 연령층에 해당하는 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의 1990년대 이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근거로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공급 유형인 'M'자형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보는 연구(금재호, 2002; 통계청, 2002)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취업의 유형 변화가 출산 및 육아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경력단절의 완화라고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 이유는 첫째, 횡단적 자료(cross-sectional data)에 기반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취업 유형의 전체적인 변화상을 보여주는 하지만,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의 원인 및 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포착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M자형의 두 꼭지점에 해당하는 연령인 20대 초반과 40대의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20대 초반의 대다수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사무직·생산직에 임금근로자의 형태로 취업하고 있는 반면, 30대 후반 이후의 여성들은 주로 농업어업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로 취업하고 있다. 결국 이들 두 집단은 구성원이 동일한 집단이기보다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장지연·김지경, 2001). 그러므로 'M'자형의 완화로 보이는 여성 취업 유형의 변화는 동일한 일자리에서의 연속적인 취업이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인한 단절 이후 이전의 일자리와는 다른 일자리에서의 불연속적 형태 또는 새로운 노동시장 진입자에 의한 유형 변화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만을 가지고 여성의 취업경력 유형이 불연속적 형태를 벗어나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의 분석 결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김영옥, 1998).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 노동의 역동적 이행 과정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를 중심으로 한 정태분석(static analysis)에서 탈피하여 종단면 자료(longitudinal data)를 중심으로 한 동태(dynamic analysis) 분석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정태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 과정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동태 분석 기법을 발달시켜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의 연구(이재열, 1996; 김영옥, 1998; 장지연·김지경, 2001; 성지미, 2001; 박수미, 2002)에서만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취업활동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자료의 부족으로 여성 노동력 연구에 있어서 출산과 양육 시기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 과정을 심도 있게 관찰할 수 있는 동태적 분석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1998년부터 시행된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자료는 현재 국내 유일의 패널자료이며, 이 자료를 이용한 소수의 연구들이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행하여 왔다. 그러나 여성 경력단절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기혼여성의 출산과 출산 이후의 노동시장 복귀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분석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 자녀의 출산 시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혼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노동시장 이행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첫 자녀 출산 이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까지의 기간을 살펴보고,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결정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까지의 경과 기간을 살펴본다.

둘째,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 여부에 따른 특성과 복귀 기간에 따른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한 인적자원의 마모 없이 노동시장에서 연속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확립하는 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출산을 중심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에 관해 분석한 서구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성들이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가 빨라지고 있다는 연구들과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 노동시장에 되돌아올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들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출산 후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가 빨라진다고 밝힌 Desai & Waite(1991)는 점차 여성들이 출산하기 전까지 일자리를 보유하다가 늦게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고, 출산 후 빠르게 진입함으로써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영국의 여성 노동시장 참가율의 변화를 검토한 Dex & Joshi(1999)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의 주요 요인은 여성이 출산 이후 짧은 공백을 두고 복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들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Garret과 그의 동료들(1990)은 미국의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자료를 분석하여 임신 이후 노동시장에서 탈퇴한 여성 중 적지 않은 여성이 재진입을 하고, 임신 전 취업상태였던 여성의 73%가 출산 후 1년 이내에 직장에 복귀함을 밝혔다. 이러한 의견과는 달리 Even(1987)은 출산 이후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분석 대상의 대부분이 'L'자형의 분포를 이루어,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기혼여성들이 출산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인구학적 특성, 인적자본, 가족 및 자녀보육, 가계 경제적 여건, 시장환경 관련 등 다섯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연령과 학력, 그리고 둘째 자녀의 출산이다. 인적자본 특성에서 논의될 학력을 제외하고, 연령과 자녀의 출산 간격만을 살펴보면 대체로 젊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예컨대 Desai & Waite(1991)의 연구에 의하면 젊은 층의 여성이 출산 후 노동시장 재진입률이 높고, 취업에 대해서 더 강한 애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NLSY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Phang(1994)의 연구에 의하면, 젊은 여성은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기는 하나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이행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젊은 여성들의 경우 연속성이 있는 취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생애에 노동시장 참여 시간이 불연속적으로 분산되는 취업 경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Klerman(1993)은 출산이 첫 아이 출산이 아닌 추가적인 출산일 경우에는 노동시

장으로 복귀가 첫 아이 출산 때보다 빨라진다고 하였고, 이재열(1996)의 연구에서도 마지막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는 노동시장 참여로의 이행률이 결혼 전의 2.8배에 달해 이 시기에 노동시장 복귀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령이 낮을수록 노동시장 재진입도 빠르고 재탈퇴도 빈번하며, 첫 출산의 경우보다는 추가적 출산일 때 경력단절 기간은 짧아지고 복귀는 빨라짐을 알 수 있다.

2. 인적자본 관련 요인

출산 전후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적자본 관련 요인은 학력과 경력, 그리고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탈퇴와 복귀의 과정에 있어 학력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혼여성 생애 노동공급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고학력일수록 노동시장 복귀보다는 단절된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살펴보면, Chang(1997)은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자녀양육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임금은 출산 직후 더 높아져, 출산 이후 노동시장 참여에 이들의 학력은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Greetin(1989)도 출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에 대해서 학력은 부(-)의 영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는 다른 견해로 Leibowitz와 그의 동료들(1991)은 고학력보다는 고졸 이하의 학력이 노동시장 복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Klerman(1993)도 고학력일수록 임신 기간에 노동시장을 떠날 확률이 낮다고 하였으며, Klerman & Leibowitz(1990)는 출산 이후 노동시장 복귀에 학력이 정(+)의 효과를 보이고, 기대임금이 높은 고학력 여성의 경우가 출산 후 복귀가 빠른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빠른 복귀를 하는 여성의 대부분이 고졸 이하의 학력수준인 것으로 밝혔다. 한편, Flemlee(1984)는 높은 교육수준의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떠날 때도 빠르게 떠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고학력의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내 연구의 경우, 이재열(1996)의 연구에서는 대졸 여성들의 비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의 이행확률이 낮아서 우리나라 대졸 이상의 여성들은 일단 비취업상태에 놓이면 비취업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영옥(1998)의 연구에서는 대졸

학력이 아닌 고졸 학력 여성의 비취업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함께 임금에 반영되는 경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취업경력이 많은 여성일수록 경력이 단절될 확률이 낮고, 노동시장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수미(2001)는 첫 취업 이전에 결혼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8년 정도나 취업 시점을 연기하는 반면, 첫 취업을 한 뒤 결혼과 출산을 한 여성들은 일정 기간 동안 취업상태를 유지하다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경우 노동시장에서 퇴장한다고 하였다. 김영옥(1998)은 과거 노동시장 경험이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과거의 취업과 비취업 간의 이동 횟수가 한 번 증가하면 취업으로의 이행률은 1.2배 정도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잦은 이동을 경험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에 더 쉽게 진입하는 반면, 과거 총 비취업기간이 증가할수록 취업으로의 상태 전환이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Chang (1997)의 연구에서는 경력이 학력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면서, 취업경력이 많을수록 탈출확률은 낮아진다고 하였고, Barrow(1999)의 연구에서는 첫 자녀 출산 이전에 일을 했던 여성들의 3/4이 1년 이내에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노동시장 경력과 같은 요인의 영향력도 자녀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Flemlee(198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발적인 노동시장 탈퇴에 있어서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탈퇴률이 감소하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는 경력과 같은 인적자본의 효과보다는 자녀 관련 요인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력과 경력이 반영된 임금은 자녀 관련 요인과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시장에서 받는 임금이 높을수록 여성들이 취업상태에서 비취업상태로 이행하는 확률이 낮다. Mason & Kuhlthau(1992)는 여성 자신의 임금수준은 남편을 비롯한 기타 가족의 소득수준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높은 임금을 받는 여성은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에 비해 자녀 양육 문제가 그들의 취업에 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Wenk & Garret(1992)도 여성들의 출산 후 지속적인 취업에 영향력을 가지는 남편 수입의 부(-)의 효과는 점차 감소하고, 여성 자신의 수입 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받는 임금수준에 따라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Klerman & Leibowitz(199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장임금이 높을수록 여성들은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 복귀한다고 하였다. 또한 출산 후 뿐만 아니라 출산 전의 임신 기간

에 있어서도 시장에서의 높은 임금은 임신 기간 동안에 취업상태에서 비취업상태로의 이행 비율을 감소시킨다는 결과(Flemlee, 1984)도 있다. 결국 출산 이후 노동시장에 빠르게 복귀하는 것은 여성의 잠재임금과 실질임금의 차이를 줄일 수 있으므로(Barrow, 1999; Johnes, 1999), 높은 임금을 갖는 여성은 출산 후 노동시장에 더 빨리 복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Dex와 그의 동료들(1998)은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높은 임금의 여성은 자녀의 연령이 어린 동안에도 시장노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연령이 20대 초반이면 서 자녀가 있는 여성 또한 자녀 출산을 미루는 고임금의 여성들만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으나, 항상 연속적인 고용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저임금 여성의 경우는 자녀 출산을 미룰지라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고 밝혔다.

3. 가족 및 자녀보육 관련 요인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의 대체성이 가장 낮은 자녀보육 관련 요인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요인 중의 하나이다. 자녀의 보육자가 있는 여성이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Lerer & Nerlove, 1984; Clifford & Tobin, 1977). 예컨대 Klerman & Leibowitz(1990)는 자녀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친인척을 보유한 여성들이 출산 후 빠르게 노동시장으로 되돌아오고, 노동시장에 3개월 이내에 복귀한 여성의 1/2이 자녀보육을 맡는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 친인척에 의한 보육은 부모에 의한 보육과 같은 높은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친인척의 존재는 금전적인 자원 이외에 여성이 보육 문제로 인한 노동공급의 제한을 덜 느끼게 한다(Mason & Kuhlthau, 1992). 성지미·차은영(2001)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보육을 맡아줄 수 있는 부모 세대와의 동거, 특히 여성 노인과의 동거가 여성의 근로시간에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 노인이 기혼 취업여성이 필요로 하는 가사 및 보육과 관련된 자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보육비용은 여성의 노동시장 탈퇴를 증가(Blau & Robin, 1989; Conelly, 1992, Barrow 1999)시키게 되는데, 보육을 맡아 줄 친인척이 있는 여성들은 그렇지 못한 여성들에 비해 낮은 보육비용을 지출(Heckman, 1974)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유보임금을 갖게 되어 노동공급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가계경제 관련 요인

가계의 소득수준은 여가를 살 수 있는 여력을 의미하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시장 노동은 가사노동이나 여가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기혼여성은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소득에 따라 자신의 경제활동참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크다(장지연·김지경, 2001).

일반적으로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의 총 소득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와 근로시간에 부(-)의 효과를 갖는다. 이것은 가구의 총 소득이 낮은 경우 여성이 생계유지 또는 가계의 보탬이 되기 위해 노동공급을 한다는 소득효과를 입증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lerman & Leibowitz(1990)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의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이 출산 이후 바로 노동시장에 복귀하고, 남편 등 기타 가족원의 수입과 자산이 많은 여성일수록 취업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에서 비취업으로의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Dex와 그의 동료들(1998)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소득은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nk & Garrett(1992)의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출산 직후 노동시장 참가에 관한 여성 자신의 수입 능력 효과는 더 커지고 있는 반면에 남편 소득의 효과는 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편의 소득이나 가구의 총 소득과 같은 가계경제학적 측면의 요인이 여성의 노동공급, 특히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있어서 여전히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최근 연구들에서 밝혀지는 바와 같이 여성 자신의 시장임금이 가계경제 변수보다 노동시장 행동을 설명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단지 가계 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부가적인 노동공급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5. 시장환경 관련 요인

노동시장 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거주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제도 특성이다. 먼저, 거주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거주하는 지역의 실업률이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row, 1999). 대도

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 세대와 동거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보육 조력자의 제공이 어렵고, 그 결과 기혼 여성의 근로시간에 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성지미·차은영, 2001). 제도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순임금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촉진한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에 있어 소득공제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Klerman & Leibowitz). 그러나 Leibowitz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1991)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보육에 대한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출산 후 여성이 3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비율은 증가하나, 이후 노동공급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녀보육과 관련된 소득공제는 출산 이후 빠른 복귀에는 매우 효과적이거나 장기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Ⅲ.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되는 부분은 4년(1998~2001년)에 걸친 반복 조사를 통해 축적된 취업력(work history) 혹은 노동시장 이동(labor market transition) 과정을 포착한 부분이다. 취업력에는 15세 이상 표본 원가구원의 생애 경험한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회고 자료(retrospective data)도 포함되어 있다.

분석 대상은 출산 경험과 생애 취업 경험이 있는 한국노동패널 원가구원 기혼여성 중 첫 자녀 출산 시기가 1997년 이후이면서 출산 전 취업상태였던 128명이다. 분석 대상을 1997년 이후에 첫 자녀를 출산한 기혼여성이면서 출산 전에 취업상태¹⁾였던 128명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1998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한국노동패널 자료에는 노동시장 경력과 관련된 일부분의 회고 자료를 제외하고는 1997년 이전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즉 1997년 이전의 한국노동패널 자료에는 15세 이후 경험한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1) 본 연구에서는 출산 전 취업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출산 시기에서 10개월 전 시점까지로 포괄적으로 보았다. 이는 모형 분석의 대상자의 수가 적은 것을 감안할 때, 임신으로 말미암아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 경우 등이 자료에서 누락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있으나, 일자리의 산업과 직업 그리고 취업형태에 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일 뿐 여성의 노동공급과 노동시장 이동을 분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타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분석 대상자 128명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인구학적 특성으로서의 연령과 학력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27.2세로 나타났고, 82.0%가 30세 미만이었다. 평균 교육연수는 13.3년이었고 58.6%가 고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특성으로서의 자녀보육 대행자²⁾ 유무와 남편의 소득을 살펴보면, 74.2%가 자녀보육 대행자가 없었으며, 남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42.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85.2%의 취업형태가 임금근로였고, 직업의 경우 사무직 42.2%, 전문관리직 24.2%, 서비스직 21.8%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형태에 있어

<표 1> 분석 대상자의 특성

(N=128, 비율=100.0)

변수		변수값	사례수	비율/ 평균	표준편차
인구학적 특성	연령	30세 미만	105	82.0	
		30세 이상	23	18.0	
		평균(세)			27.2
	학력	고졸 이하	75	58.6	
		전문대졸	25	19.5	
대졸 이상		28	21.9		
평균(년)				13.3	1.9
가계 특성	자녀보육 대행자	있음	33	25.8	
		없음	95	74.2	
	남편 소득	월평균 남편 근로소득(만원)		142.6	101.3
일자리 특성	취업형태	임금근로	109	85.2	
		비임금근로	19	14.8	
	직업	전문관리직	31	24.2	
		사무직	54	42.2	
		서비스직	28	21.8	
		생산직	7	5.5	
		기타	8	6.3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84	65.6	
		시간제	44	34.4	
	근로소득	월평균 임금(만원)		94.9	47.6
근속연수	일자리 근무기간(개월)		49.4	37.9	

2) 한국노동패널 자료에는 자녀보육 대행자를 ① 동거하고 있는 가족/친지 ② 비동거하고 있는 가족/친지 ③ 동거하고 있는 타인 ④ 비동거하고 있는 타인으로 나뉘어 조사되어 있다.

서는 65.6%가 전일제, 34.4%가 시간제 근로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고, 일자리에서의 임금인 월평균 근로소득은 94.9만 원이었으며, 평균 근속연수는 49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석 모형

가. 콕스 비례재해률 모형(Cox Regression Hazard Model)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이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콕스 비례재해률 모형(Cox Regression Hazard Model)이다. 이 모형에서는 출산이 측정 기간의 시작이고, 노동시장으로의 복귀가 이 기간을 탈출하는 사건(event)이 되며, 이들 사이의 기간이 분석 단위가 된다.

분석 단위인 출산 시점부터 노동시장 복귀까지의 기간(spell; duration)은 다음과 같은 재해률 함수(hazard function), $h_i(t)$ 를 따른다.

$$h_i(t) = h_0(t) \exp(Z' i \beta)$$

여기서 $h_0(t)$ 는 임의의 특정화되지 않은 기준 재해률 함수(baseline hazard function)이다. Z' 는 독립변수의 벡터이고, β 는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의 모수(regression parameters)이다.

본 연구의 콕스 비례재해률 모형에서는 출산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여성(case)의 비율(proportion)인 누적 재해률함수(cumulative hazard function)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이다. 즉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사건(event)의 재해율(hazard rate)이 된다. 재해율이란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라는 사건(event)을 경험하게 될 순간적인 확률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_{jk}(t, t + \Delta t)}{\Delta t}$$

여기서 $P_{jk}(t, t + \Delta t)$ 는 t 시점에서 j 상태에 있다가 $t + \Delta t$ 시점에 k 상태로 변화하게 될 확률이다.

이와 같은 재해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t) = h_0(t) \exp(b_1 \times \text{인구학적특성} + b_2 \times \text{가계특성} + b_3 \times \text{출산전 일자리특성})$$

나. 분석 변수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출산 시점부터 노동시장 복귀까지의 경과 기간에 대한 재해율이고, 설명변수는 경력단절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의 인구학적 특성, 가정환경 특성, 출산 전 일자리의 특성 등이다.

분석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과 학력수준이 포함되고, 가계 특성으로는 남편의 월평균 소득과, 출산 시점 이후 노동시장 복귀 전 자녀보육 대행자의 유무가 해당되며, 출산 전 일자리 특성으로는 취업 형태, 근로시간 형태, 직업, 근로소득, 근속연수가 포함되었다.

<표 2> Cox Regression 분석변수 정의와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출산 시점에서 노동시장에 복귀하기까지 기간의 재해율	
설명변수			
범주형 변수	학력	전문대졸 이상	1=해당, 0=해당 안됨
	자녀보육대행자	자녀를 돌보아주는 사람	1=있음, 0=없음
	취업 형태	일자리의 유형	1=임금, 0=비임금
	근로시간 형태	일자리의 시간유형	1=전일제, 0=시간제
	직업	일자리가 전문관리직	1=해당, 0=해당 안됨
연속변수	연령	만 나이	
	남편소득	남편의 월평균 근로소득의 자연로그값	
	근로소득	출산 전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의 자연로그값	
	근속연수	출산 전 일자리의 총 근무기간	

IV. 결과의 논의와 해석

1. 기초분석

가.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까지의 기간

출산을 기점으로 한 취업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출산 후 노동시장으

로 복귀하여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은 분석 대상 표본의 54.7%이었고, 이들이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되돌아오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8.6개월로 나타났다.

개별 특성에 따라 평균 복귀 기간의 양상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3>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 기간과 취업상태 변화

(N=128, 비율=100.0)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 여부			평균 복귀기간(개월)
	사례수	비율	
복귀함	70	54.7	8.6
복귀 안함	58	45.3	-

<표 4> 개인 및 가계 특성에 따른 출산 후 노동시장복귀 기간

(N=70, 비율=100.0)

변 수		변수값	사례수	비율	평균 복귀 기간(개월)
인구학적특성	연령	30세 미만	52	74.3	10.2
		30세 이상	18	25.7	4.0
	학력	고졸 이하	31	44.3	12.1
		전문대졸 대졸 이상	17 22	24.3 31.4	6.3 5.5
가계특성	자녀보육 대행자	있음	43	61.4	3.0
		없음	27	38.6	12.1
	남편소득	100만원 미만 100만-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15 43 12	21.4 61.4 17.2	9.0 8.2 9.6

먼저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의 평균 복귀 기간이 10.2개월로 나타났고, 30세 이상은 4.0개월로 나타나, 30세 이상 연령층이 30세 미만 연령층보다 2.5배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 복귀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 학력수준의 경우 출산 후 평균 경력단절 기간이 12.1개월이었으며, 전문대졸은 6.3개월로 나타나 고졸 이하 학력의 1/2 수준이었다. 한편 대졸 이상의 경우는 5.5개월로 가장 짧은 복귀 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졸 이하 학력의 여성과 대졸 이상 학력 여성의 평균 복귀기간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 분석 대상자가 비슷한

연령대인 젊은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학력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자녀의 양육을 맡아줄 자녀보육 대행자의 유무에 따른 평균 복귀 기간을 살펴보면, 자녀보육자가 있을 경우 복귀기간이 3개월로 자녀보육 대행자가 없을 경우(12.1개월)에 비하여 1/4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계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남편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여성의 평균 복귀 기간을 살펴보면, 남편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을 갖는 여성과 100만~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여성의 평균 복귀 기간은 각각 9.0개월과 8.2개월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의 소득이 월평균 200만 원 이상인 여성의 평균 복귀 기간은 9.6개월로 나타나 남편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여성에 비해 평균 복귀기간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 일자리 특성에 따른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 기간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먼저 취업형태에 따른 복귀 기간을 살펴보면 출산 전 임금근로보다는 비임금근로에 취업했던 여성의 복귀 기간이 3.6개월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 형태에 있어서는 시간제근로를 하였던 여성의 복귀 기간이 14.5개월로 전일제근로를 하였던 여성의 4.2개월보다 세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분포에 따른 평균 복귀 기간을 살펴보면, 출산 전 생산직에 취업한 여성의 경우

<표 5> 출산 전 일자리 특성에 따른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 기간

(N=70, 비율=100.0)

변 수		변수값	사례수	비율	평균 복귀기간(개월)
일자리특성	취업 형태	임금근로	54	77.1	7.8
		비임금근로	16	22.9	11.4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35	64.8	4.2
		시간제	19	35.2	14.5
직업		전문관리직	22	31.4	7.3
		사무직	22	31.4	6.2
		서비스직	18	25.7	10.9
		생산직	8	11.5	17.3
근로소득		50만원 미만	9	12.9	4.1
		50만~100만원 미만	27	38.6	12.8
		50만~150만원 미만	22	31.4	6.3
		150만원 이상	12	17.1	6.8
근속연수		5년 미만	38	54.3	12.9
		5년 이상	32	45.7	3.5

가 17.3개월로 가장 긴 복귀기간을 보였으며, 사무직의 경우가 6.2개월로 가장 짧은 복귀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에서의 근로소득에 따른 복귀 기간은 월평균 50만~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여성의 경우가 12.8개월로 가장 긴 복귀기간을 가지며, 5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을 얻는 여성의 경우가 4.1개월로 가장 짧은 복귀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른 복귀 기간은 일자리에서 5년 미만의 근무 경력이 있는 여성의 경우가 5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여성에 비해 네 배 정도 긴 복귀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출산 전 일자리 특성에 따른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기간은 출산 전 사무직에서 전일제 임금근로를 하고, 근로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며 일자리에서의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여성의 경우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 여부에 따른 특성

출산 전 취업상태였던 여성은 출산을 기점으로 출산 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의 특성은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표 6>은 출산 후 취업상태를 유지한 노동시장 복귀자와 출산 후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해 버린 비복귀자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복귀한 여성 중 3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5.7%이었고, 복귀하지 않은 여성 중 3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8.6%로 나타났다. 복귀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27.8세로 복귀하지 않은 여성의 평균 연령 26.5세보다 1.3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귀한 여성 중 대졸 이상 학력의 비율이 31.4%이었고, 복귀하지 않은 여성 중 대졸 이상 학력의 비율이 10.3%이며, 복귀자의 평균 교육연수는 13.8년으로 비복귀자의 12.6년보다 1.2년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계 특성을 살펴보면, 출산 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여성의 38.6%가 노동시장 복귀 이전에 자녀보육 대행자가 있었으며, 복귀를 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10.3%만이 자녀보육 대행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의 월평균 소득의 경우는 복귀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가 5.8만 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취업형태에 있어서는 출산 전 비임금근로였던 여성의 경우가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근로시간 형태에 있어서는 복귀한 여성의 경우 전일제 근로의 비율이 64.8%인 반면에 복귀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83.6%가

시간제근로를 하여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직업 분포에 있어서는 복귀하지 않은 여성 중 출산 전 사무직에 취업하였던 여성의 비율이 57.7%로 매우 높았으며, 출산 전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로소득은 복귀한 여성의 경우가 6.6만 원 정도 높았고, 평균 근속연수도 복귀한 여성이 15개월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대졸 이상 고학력의 인적자본 효과가 작용하고 있으며, 출산 후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자녀양육의 문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여성의 남편 소득이 노동시장에 복귀한 여성보다 높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남편의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여성이 시장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노동공급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출산 전 일자리의 형태가 비임금근로일 때 복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표 6〉 출산 전 취업자의 노동시장 복귀 여부에 따른 특성

변 수	변수값	노동시장 복귀 여부				
		복귀함(n=70)		복귀 안함(n=58)		
		사례수	비율/평균	사례수	비율/평균	
인구학적 특성	연령	30세 미만	52	74.3	53	91.4
		30세 이상	18	25.7	5	8.6
		평균(세)		27.8		26.5
	학력	고졸 이하	31	44.3	44	75.9
전문대졸		17	24.3	8	13.8	
대졸 이상		22	31.4	6	10.3	
평균(년)			13.8		12.6	
가계 특성	자녀보육 대행자	있음	27	38.6	6	10.3
	없음	43	61.4	52	89.7	
	남편 소득	월평균 남편 근로소득 (만원)		140.0		145.8
일자리 특성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54	77.1	55	94.8
		비임금근로자	16	22.9	3	5.2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35	64.8	9	16.4
		시간제	19	35.2	46	83.6
	직업	전문관리직	22	32.4	9	17.3
		사무직	24	35.3	30	57.7
		서비스직	18	26.5	10	19.2
		생산직	6	5.8	3	5.8
근로소득	월평균 임금(만원)	70	97.9	58	91.3	
근속연수	일자리 근무기간(개월)	70	56.0	58	41.4	

가 수요자의 의사결정이 깊이 반영되는 임금근로의 형태로 행해지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출산 전에 전일제근로를 하고, 안정된 소득이 주어진다면 여성이 출산 후에도 노동시장에 복귀할 확률이 높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초분석만으로는 이러한 특성이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출산 후 경력단절 상태에서 노동시장 복귀로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모형 분석에서 체계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다.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 기간에 따른 복귀자의 특성

출산 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여성들은 산전후 휴가 후 복귀한 여성과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여성으로 나누어지며, 이들의 특성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7>은 출산 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여성들을 출산 시기부터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까지의 기간을 2개월을 기준으로 그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³⁾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분석 대상자 128명 중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한 여성은 70명이었다. 이들이 출산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2개월 이하인 경우가 43명이었고, 2개월 이상인 경우가 27명이었다⁴⁾.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출산 후 2개월 이내의 빠른 복귀를 한 여성의 평균 연령이 2.4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개월 이내에 복귀한 경우 30세 이상의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9.5%인 데 반해, 2개월 이후에 복귀한 여성 중 3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7%에 불과하여 평균 연령에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복귀한 여성 중 대졸 이상의 비율이 39.6%로 2개월 이후에 복귀한 여성 중 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18.5%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2개월 이후에 복귀한 여성의 경우는 고졸 이하의 비율이 66.7%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3) 2001년 11월 개정된 현행 법정 산전후 휴가는 90일이나,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법 개정 이전 자료이므로 법개정 이전의 60일 산전후 휴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사용하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매해 4월에서 9월까지 조사하는 자료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01년 자료의 경우에도 법개정이 된 11월 이전 자료만이 포함이 되어 있어, 이전 산전후 휴가 기간으로 적용한 것이다.
- 4) 본 연구 분석에서의 경력단절 기간에 따른 복귀자의 특성은 출산 전 일자리로의 복귀 여부에 따른 특성과 같다. 즉 2개월 이내에 복귀하는 여성들의 100%는 산전후 휴가 또는 휴직 이후 출산 전 일자리를 유지하는 노동시장 복귀 형태이고, 2개월 이후에 복귀하는 여성은 100% 출산 전 일자리에 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에서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 전 일자리로의 복귀 여부에 관한 분석은 제시하지 않는다.

〈표 7〉 복귀 기간에 따른 특성

변 수		변수값	노동시장 복귀 기간			
			2개월 이내(n=43)		2개월 이후(n=27)	
			사례수	비율/평균	사례수	비율/평균
인구학적 특성	연령	30세 미만	26	60.5	26	96.3
		30세 이상	17	39.5	1	3.7
		평균(세)	28.7		26.3	
	학력	고졸이하	13	30.2	18	66.7
		전문대졸	13	30.2	4	14.8
		대졸 이상	17	39.6	5	18.5
평균(년)		14.3		12.9		
가계 특성	자녀보육 대행자	있음	23	53.5	4	14.8
	없음	20	46.5	23	85.2	
	남편 소득	월평균 남편 근로소(만원)	142.5		136.1	
일자리 특성	취업 형태	임금근로자	36	83.7	18	66.7
		비임금근로자	7	16.3	9	33.3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35	81.4	7	25.9
		시간제	8	18.6	20	74.1
	직업	전문관리직	17	39.5	5	18.5
		사무직	16	37.2	8	29.6
		서비스직	6	14.0	12	44.4
		생산직	4	2.3	2	7.5
	근로소득	월평균 임금(만원)	115.4		94.6	
	근속연수	일자리 근무기간(개월)	74.2		27.0	
복귀 기간	출산-복귀 경과기간(개월)	2		19.1		

둘째, 가계 특성을 살펴보면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빠른 복귀를 한 경우에 53.5%가 자녀보육 대행자가 있는 반면, 2개월 이후에 복귀하는 여성의 경우는 14.8%만이 자녀보육대행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월평균 남편의 소득은 2개월 이내에 복귀하는 여성의 경우가 142.5만 원이었고, 2개월 이후에 복귀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136.1만 원으로 나타나 2개월 이내에 복귀하는 여성의 남편 소득이 6.4만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출산 전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2개월 이내의 빠른 복귀를 하는 여성의 경우 출산 전에 전일제근로를 하였으며, 전문관리직에 종사하였고, 월평균 소득이 115.4만 원으로 2개월 이후에 복귀한 여성의 94.6만 원에 비해 20.8만 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빠른 복귀를 하는 여성의 근속연수는 2개월 이후에 복귀하는 여성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의 결정요인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로의 이행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네 개의 분석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⁵⁾ 모형의 설명변수는 상관분석의 결과 상관계수가 0.70 미만으로 설명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노동시장 복귀의 결정요인 분석: Cox Regression Analysis

변수		변수값	모형 1	모형 2	모형 3
인구학적 특성	연령	만나이	.04(1.04)	.03(1.04)	.01(1.01)
	학력	전문대졸 이상 (고졸 이하)	.85(2.30)**	.88(2.40)**	.73(2.08)*
가계 특성	남편 소득	월평균 남편 근로소득의 자연로그 값		-.21(.81)	-.27(.77)
	자녀보육 대행자	있음 (없음)		1.05(2.86)**	.73(2.08)*
출산 전 일자리 특성	취업 형태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1.46(.23)***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시간제)		1.22(3.38)***
	직업	전문·사무직 (그 외 직업)			.05(.96)
	근로소득	월평균 근로소득의 자연로그 값			.16(1.17)
	근속연수	일자리 근무기간			.001(1.00)
-2log likelihood			623.43	608.50	586.16
χ^2			14.92	29.86	52.20
χ^2 증가량				14.94***	22.34***
사례수			128		
EVENT			70		
CENSORED(%)			58(45.3)		

주: * p<.05, ** p<.01, *** p<.001

() : hazard ratio.

5) 모형분석의 표본 수가 128명임을 감안하여 인구학적 특성과 가계 특성, 그리고 출산 전 일자리 특성 등의 설명변수 중 대표적인 변수만이 사용되었다.

<표 8>에 제시된 모형은 인구학적 특성 변수의 효과만을 분석한 모형 1과 모형 1에 가계 특성 변수를 추가한 모형 2, 그리고 모형 2에 출산 전 일자리의 특성 변수를 추가한 모형 3의 세 가지이다. 각 모형의 $-2\log$ likelihood 값의 변화와 χ^2 증가량을 비교하여 보면 full-model인 모형 3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출산 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행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세 모형의 분석 결과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정된 모형 3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된다.

모형 3의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모형 1의 분석 결과와 모형 2의 분석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연령과 학력의 인구학적 변수만이 포함된 모형 1의 경우 학력의 변수만이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 이행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이 고졸 이하의 여성에 비해 출산 후 노동시장에 돌아올 이행률이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남편의 월평균 근로소득과 자녀보육 대행자의 유무 변수의 효과를 본 모형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문대졸 이상 학력 여성의 이행률이 고졸 이하 학력의 여성에 비해 2.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보육 대행자가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출산 후 노동시장에 복귀할 확률이 2.9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구학적 특성으로서의 학력과 가계 특성으로서의 자녀보육 대행자의 유무, 그리고 출산 전 취업 특성으로서의 취업 형태와 근로시간 형태가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 2에서 나타난 학력과 자녀보육 대행자의 효과 이외에 추가된 출산 전 일자리 특성 변수 중 취업 형태와 근로시간 형태가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 이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변수 특성별로 자세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인구학적 변수에서 연령은 모형 1과 모형 2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분석의 표본 128명이 1997년 이후 첫 아이 출산을 경험한 젊은 기혼여성들로 구성되어 이들간의 연령 차이가 크지 않고, 연령에 따른 특성이 구별되기 어려운 같은 세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학력은 모형 1과 모형 2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이 고졸 이하 학력의 여성에 비해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이행률이 2.1배 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참가 확률이 높아진다는 인적자본이론을 지

지함과 동시에 대졸 여성이 출산 후 비경제활동 상태로 편입되는 비율이 높아 'L'자형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다는 견해에 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의 고학력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적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를 주저 하였던 것을 감안해 볼 때, 최근 젊은 고학력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되돌아 갈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이 증가되었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노동시장 구조가 상당 부분 변화하였 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가계 특성 변수인 자녀보육자 대행자의 유무에 있어서는 자녀보육 대행자가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출산 후 노동시장에 복귀할 이행률이 2.1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에 있어 최대 관건이 자녀보육을 대체해 줄 조력자가 있는가의 여부임을 강조한다.

셋째, 출산 전 일자리의 특성 변수 중에서는 취업 형태와 근로시간 형태만이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기초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 형태의 경우 출산 전에 임금근로에 취업했던 여성은 비임금근로였던 여성에 비해 출산 후 노동시장에 복귀할 이행률이 77%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전 비임금근로자가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되돌아오기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달리 해석하면 임금근로의 형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여건이 기혼여성들에게 있어 복귀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고 취업상태 유지비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근로시간 형태의 경우는 출산 전 전일제 근로를 하였던 여성이 시간제 근로를 하였던 여성에 비해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이행률이 3.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연한 노동시장이라는 구조적 환경이 기혼여성의 가사와 일을 병행하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시간제 근로 여성이 전일제 근로 여성보다 취업 단속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의 시간 가치가 증대되는 생애주기에서 여성들이 전략적으로 '시간제' 취업을 함으로써 취업 연속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 후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는 여성과 전일제 근로를 선택하는 여성의 특성 비교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인력 저활용 문제의 핵심이 되는 출산이라는 생애 사건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은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첫 아이 출산 이후 어느 정도의 기간 이후에 노동시장에 복귀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혼여성들이 출산 이후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연쇄적인 여성 경력단절의 고리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내는 것이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학력이라는 인적자본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대학 교육을 받은 젊은 기혼여성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을 반영함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여건이 개선되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한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저학력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임을 반증하기도 하여, 저학력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비자발적인 비경제활동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처럼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특성을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 제반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 복귀 전 자녀보육 대행자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이행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분석 결과는 여성인력 저활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 부담의 해소가 시발점이 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이다. 육아 부담의 해소가 여성인력 활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시발점인 것은 관련 정책 및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고 구체적 해결방안이 모색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이 한 가족원의 증가 또는 개인 생애의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사회적차원 수준에서 인식되고 있어 관련 정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의 적용과 실천에 앞서 출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출산 전 취업 형태가 임금근로일 경우 출산 이후 노동시장 복귀로의 이행률이 비임금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임금근로가 임금근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가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임금근로의 취업 형태에 있었던 여성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은 비임금근로가 임금근로에 비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자율성 등이 강한 특성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 출산 이후 시기에는 이전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가사노동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기 어려운 임금근로보다는 가사노동과 시장노동 시간을 상황에 따라 조절하여 병행 가능한 비임금근로가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지속적인 노동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이 유연한 비임금근로의 취업 형태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관련 정책 수립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출산 전 전일제 근로를 하였던 여성이 시간제 근로를 하였던 여성에 비해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이행률이 높다는 것은, 비정규 시간제 근로의 여성이 출산이라는 생애 사건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될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늘리기보다는 여성인력이 노동시장 초입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비정규 일자리에 편포되는 문제와 함께 여성인력의 저활용 문제를 연계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출산 후 이들이 비자발적으로 비경황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가 충분히 제공되는 안정적인 전일제 일자리가 기혼여성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과제이다.

2. 제한점 및 제언

우리나라 여성의 'M'자형 경제활동참가율 형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를 미시적으로 파악한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4년 동안 누적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인구학적 특성과 가계특성 그

리고 출산 전 일자리의 특성이 모두 반영된 체계적인 모형분석을 행하기 위하여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기혼여성이 아닌, 1997년 이후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만을 모형분석의 표본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우려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수임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형분석 대상이 젊은 기혼여성으로 한정되어 전체 기혼여성의 경향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살펴볼 수 없는 제한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태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동태분석 방법의 하나인 콕스 비례재해를 분석을 모형분석에 이용하였으나, 패널의 추적 기간이 짧고 적은 수의 표본으로 분석하여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라는 사건이 일어난 수가 적어 추정값이 logistic 회귀분석의 회귀계수 추정값과 비슷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동태분석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후 한국노동패널 료가 지속적으로 조사되어 누적된다면 보다 많은 수의 자료 분석으로 관련 구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나아가 국내에 보다 다양한 패널자료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둘째, 자료분석 정에서 연구자의 임의 가정이 포함된 문제이다. 예컨대 경력단절 기간에 따른 기초분석에 있어서 2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 복귀한 여성의 경우, 여성의 자유의사 결정에 의한 복귀 간인지 아니면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산전후 가 기간이었는데 그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개별 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채 연구자가 임의로 법정 산전후 휴가일수를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복귀의 모형분석에 있어서, 모델에 포함된 출산 전 취업상태를 출산 일에서 10개월 전까지로 포괄적으로 보았다. 이는 임신으로 말미암아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자료에서 누락되는 것을 우려하여 출산 전 취업상태를 반영하는 기간을 다소 길게 본 것이나, 소수의 경우를 확대하여 가정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출산 이후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이행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인력의 저활용 문제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연구 과는 여성인력의 활용에 관한 제반 책의 수립시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틀이 후속연구에서 자료의 보완으로 체계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우란. 「여성인력과 기업경쟁력」, 『CEO Information』 334호, 삼성경제연구소, 2002.
- 금재호.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 김영옥. 『여성취업력의 동태적인 변화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1998.
- 매일경제신문사, 『우먼코리아보고서』. 2001.
- 박수미.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36집 2호(2002. 4): 145-174.
- 성지미·차은영. 「세대간 동거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2000. 12): 62-83.
- 성지미.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논집』 25권 1호(2000. 3): 161-182.
- 이재열.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연관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인구학』 19권 1호(1996. 3): 5-44.
- 장지연·김지경. 「양육형태와 비용이 기혼여성의 취업단절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2001. 12): 365-388.
- 최강식·정진화. 「여성의 노동시장경력 단절현상과 대책」. 『산업관계연구』 7권 6호(1997. 6): 381-407.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2.
- Barrow, L. "An Analysis of Women's Return-To-Work Decisions Following First Birth." *Economic Inquiry* 37 (3) (1999): 432-451.
- Blau, D. & Robins, P. "Fertility, Employment, and Child-Care Costs." *Demography* 26 (1989): 287-299.
- Chang, Jiyeun. "Labor Force Withdrawal and Entry Surrounding First Childbirth of Married Wome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1997.
- Connelly, R. "The Effect of Child Care Costs on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 (1992): 83-90.

- Desai, S. & Waite, L. "Women's Employment During Pregnancy and After the First Birth: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work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1991): 551-566.
- Dex, S., Joshi H, Macran, S., & A. McCulloch. "Women's Employment Transitions Around Child Bearing."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0-61(1998): 79-98.
- Even, W. "Career Interruptions Following Childbirth." *Journal of Labor Economics* 5(2) (1987).
- Felmlee, D. "A Dynamic of Women's Job Mobility." *Work and Occupations*, 11 (1984): 259-281.
- Greenstein, T. "Human Capital, Marital and Birth Timing, and the Postal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3) (1989).
- Hakim, C. *Key Issues in Women's Work: Female heterogeneity and the Polarisation of Women's Employment*. London: Athlone, 1996.
- Johnes, G. "Schooling, Fertility and the Labour Market Experience of Married Women." *Applied Econometrics* 31 (1999): 585-592.
- Klerman, J. A & A. Leibowitz. "Child Care and Women's Return to Work After Childbirth." *American Economics Review*. Nashville. 80(2) (1990): 284-290.
- Lehrer, E. & M. Nerlove. "The Labor Supply and Fertility Behavior of Married Women." *Research in Population Economics* 3 (1981): 123-145.
- Leibowitz, A., Klerman, J., & L. Waite. "Employment of New Mothers and Child Care Choice: Differences by Children's Ag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7 (1991): 112-134.
- Mason, K. O. & K. Kohlhau. "Determinants of Child Care Ideals Among Mothers of Pre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August 1989): 593-603.
- Phang, Hanam. "A Dynamic Study of Young Women's Labor Market Transitions over the Early Life Course : Cohort Trends, Racial Differential, and Determinan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1994.
- Wenk, D. & P. Garrett. "Having a Baby : Some Predictions of Maternal Employment Around Childbirth." *Gender and Society* 6(1) (1972): 49-65.

abstract

Analysis of Married Women's Return to the Workforce Following First Childbirth

Ji Kyung Kim · You Hyun Ch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dynamic analysis of married women's return to the workforce following first childbirth. We have based our investigation on the data compiled by the KLIPS, where the workforce performance is the focal point of its research, and by these material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aspects of the factors that decide post-childbirth return to the workforce. We have applied the Cox Regression Hazard Model, where corroborative evidence are statistically applied.

The following are the conclusions that were derived from this research:

First, according to the study, academic background is a vital factor in reducing the gap and time of women's return to the workforce.

Second, whether having active child-care after giving birth or not doubles the chances of women returning to the workforce.

Third, if the pre-birth employment form was a wage-work and the rate of returning to the workforce was lower than the non-wage, relatively speaking, this reflects that the non-wage form of work, which provides a better possibility to return to the workforce after giving birth, could be another way to prevent women's career discontinuation.

Key Words: married women, childbirth, workforce, return